

20개월 된 딸·부인과 첫 가족여행 꿈 부풀었는데...

# 비정규직 근로자의 슬픈 죽음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당신이 그렇게 애매하던 우리딸이 ‘아빠’만 찾잖아요.”

지난 28일 밤 10시 여수시의 한 장례식장에는 남편을 잃은 정모(33)씨의 애끓는 통곡이 이어졌다.

정씨의 옆에서는 분홍색 옷을 입은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빠의 영정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어, 아빠다, 아빠”라며 해맑게 웃었다.

정씨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인 권모(34)씨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26일 여수 율촌산단의 한 작업장에서 철관 끼는 사고로 숨졌다. 대기업인 H건설회사에서 이 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근로자가 문에 끼어 숨졌고, 같은 해 12월 한 작업자는 공구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악명높은 작업장이다.

아내 정씨는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남편에게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못한 게 후회로 남는다”며 “생활에 쫓겨 아이가 태어난 이후 여행을 한 번도 못 간 탓에 28일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오늘은 너무 좋다’며 떠난 출근길이 마지막이 됐다”며 울먹였다.

전남의 대표 산업단지인 여수 율촌산단 내 중소기업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여수지역에서는 울산(45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2명이 숨지고 1명이 큰 부상을 당한

## 용접작업 중 철관에 끼여 숨져 율촌산단 중소기업 잇단 사고 한 회사서 3개월새 3명 사상

### 여수 안전사고 전국 두번째 사고 예방 근본대책 마련 시급

대기업 자회사를 비롯해 중소기업까지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노동청은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지정명령 등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사고 방지 해결에는 소극적이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근로자들은 대표적 사례로 율촌산단 내 H건설회사인 모 업체 사례를 지목하고 있다. 30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 50분께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권모(34)씨와 최모(37)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무게 2.5t짜리 철관(가로 7m·세로 2.3m·두께 14mm)에 깔렸다.

이 사고로 권씨는 숨지고, 최씨는 극적으로 구조됐다.

하청업체에서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권씨는 지난해 10월 입사했으며, 밝은 성격과 성실한 근무태도로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이었다는 게 동료의 말이다.

권씨가 숨진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0

월에도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장의 문에 끼여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숨진 권씨의 추천으로 회사에 들어온 김모(36)씨가 철재박스를 제작하던 중 갑자기 튀어오른 공구에 맞아 안구파열과 안면 골절상 등을 입고 오른쪽 눈을 실명하기도 했다.

권씨의 유족측은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탓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 자회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먹구구식 작업 시스템 때문에 죽고 다치는 것은 모두 힘없는 계약직 직원뿐”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광양경찰은 현재 권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함께 업체의 안전관리·현장 감독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측은 근로감독관을 사고 당일 현장에 보내 경위를 조사한 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창열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사망 사고가 발생해 작업명령 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율촌산단내의 전체적인 사고 현황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하청업체와 함께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등 사고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한영기자 young@

## 세종병원 압수수색...관계자 줄소환 예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9일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 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과 재단 이사장 손모 씨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손 씨는 병원 건물 불법 증축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전반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병원 측 과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뤄졌다.

경찰은 병원 측이 평소 안전·환자 관리 등 업무에 소홀히 한 점이 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림막 설치 등 불법 증축, 화재에 따른 정전시 비상발전기 미작동, 불이 난 1

층의 방화문 미설치 등은 현재까지 사상자 추가 발생 요인으로 꼽혀 왔다.

경찰은 압수한 각종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병원 운영 현황과 각종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 배선 2개의 정밀 감정을 실시 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의 수사는 형사 처벌 대상을 가리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최악의 참사인 만큼 일부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손 씨뿐만 아니라 석모 세종병원 병원장·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들 3명 외에도 추가로 관계자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로 사신을 유기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민중당 여성-엄마민중당 당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직의 공식 사과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여검사 성추행 의혹 입증한 사안 철저히 진상 조사해 응분의 조치”

### 문무일 검찰총장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광주일보 30일자 7면)과 관련해 철저히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

문 총장은 30일 출근길에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주장한 광주 출신 서지현 검사는

목포여고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인 서 검사는 전남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모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모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검사장과 함께 사건을 덮고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런 사실 등을 지난 2017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던 인물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였

다. 그는 지난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으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으면서 ‘도가니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리남 성여고를 거쳐 전남대 대학원을 나왔다.

서 검사의 피해주장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그 일이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됐다.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며 “서 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번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오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한파 속 영아 유기...숨지기 직전 극적 발견

### 광주 북구 아파트 복도서

영하 6.8도까지 떨어진 30일 새벽 광주 한 아파트 복도에서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숨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엄마가 이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서 땀줄이 달린 여자 신생아가 울고 있는 것을 주민 A(여·26)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고양이가 밖에서 우는 것 같아 나가보니,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다”면서 “집 안으로 안고 들어와 몸

의 핏자국을 닦아내고, 침대에 누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의 체온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새벽 5시께 경찰에 신고했고, 신생아는 함께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가 아파트 주민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 발견을 전후로 아파트 1층 현관 CC(폐쇄회로)-TV에 입·출입자가 한 명도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이 특정한 장소에서 아이를 낳은 뒤 A씨의 집 현관 앞 복도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DNA를 채취한 뒤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사 등을 통해 아이의 친모를 찾아낼 예정이 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담당의 없어 틀니 못하자 욕설 행패



○~70대 할머니가 틀니를 하기 위해 치과를 찾았다가 의사가 없다는 소리에 격분, 욕설을 퍼붓는 등 업무에 방해한 혐의로 경찰서행.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75) 할머니는 지난 29일 정오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치과에서 치위생사인 장모(여·44)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까이 다른 손님의 진료 접수를 방해했다는 것.

○~A 할머니는 진료비 150만원을 예치해 놓을 정도로 단골손님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조사에서 “이거 너무 아파 틀니가 급했는데, 병원에서 이날 틀니제작이 어렵다고 하자 순간 화가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강력 추천합니다. 010-3605-5000

## ※ 구례, 그랜드 호텔 매매 ※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1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세미나실/사무실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정도
- 감정가 / 시세 - 20억 매매 - 13억

## ※ 나주, 2층주택(전원주택/별장) ※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3월초 입주 가능
- 시세 - 1억 매매 - 7200만원